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2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킴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함

성경: 수 1:2, 6, 11, 5:13-15, 6:1

- I. 구약에는 일련의 예표들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러한 예표들의 완전한 성취가 있다 — 고전 10:3-4, 1, 11.
- II. 여호수아기는 심오한 예표들이 있는 책이다 — 수 1:13, 2:18, 3:3, 10-11, 5:12, 6:6.
- III. 여호수아기의 내재적인 의미는 땅을 취하는 것이다 — 수 1:2, 6, 5:12.
- IV.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에서의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나안이 예표에 있어서 두 방면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골 1:12, 엡 1:3, 2:2, 6:12.
 - A. 긍정적인 방면에서 풍성한 땅인 가나안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신 8:7-10, 골 1:12, 엡 3:8.
 1. 좋은 땅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예표이다 — 신 8:7.
 2. 좋은 땅인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엡 3:8.
 3. 성경에서 땅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자 상징이다 — 창 1:9, 벧후 3:5.
 - a.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13절에서 셋째 날에 죽음의 물에서 드러난 땅은 셋째 날에 죽음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b.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24절과 25절에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생명이 땅에서 나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갖 종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의미한다.
 - c.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땅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다 — 신 8:7-10.
 4. 좋은 땅, 곧 죽음의 물에서 드러난 땅이신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으로 묘사되신다 — 창 1:9, 수 1:13.
 - B. 부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사탄의 어둠의 왕국의 하늘 부분인 공중, 곧 사탄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는 하늘들의 영역을 상징한다 — 엡 2:2, 6:12.
 1.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은 사탄의 부하들로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따라서 사탄은 그의 왕국, 곧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 행 26:18, 마 12:26, 25:41, 엡 6:12, 골 1:13.

여호수아기

메시지 2 (계속)

2.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다해 왔다. 오늘날까지도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너울로 가리고 있다 — 골 2:8, 18, 고후 4:3-4.
 3. 에베소서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층이 있음을 보여 준다 — 엡 1:3, 2:2, 6:12.
 - a.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층인 셋째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좋은 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 신 8:7-10.
 - b. 하늘들의 영역 안에는 더 낮은 층인 공중 권세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으로 예표된다 — 엡 2:2.
 4. 가나안 족속은 사탄을 따른 타락한 천사들 곧 반역한 천사들의 예표인데, 이들은 사탄의 왕국에서 능력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곧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되었다 — 계 12:4, 7, 엡 6:12.
- C. 성경의 예표에서 가나안이 갖는 두 방면의 의미를 에베소서에서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구약의 여호수아기는 에베소서와 유사한데, 이것은 이 두 책이 모두 '가나안'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1.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렸고 전쟁에 참여했다 — 수 5:12, 6:1-21.
 2. 에베소서 3장 8절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 말하며, 1장 3절과 2장 6절과 6장 12절은 하늘들의 영역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며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여호수아기가 없다면,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영적 전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V.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켜야 한다 — 수 6:21.

- A. 우리는 영적 전쟁, 곧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마 6:10, 7:21, 12:26, 28, 사 14:12-14.
- B.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했을 때, 그 땅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네피림으로 가득하였다 — 민 13:33.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2 (계속)

- C.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사람의 혼합인 네피림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온갖 생명체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인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 신 7:1-2.
1. 신성한 사상에 따르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마귀적이고 귀신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진멸되어야 했다 — 신 7:2, 수 11:21-22, 14:6-14.
 2. 가나안 족속은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 곧 공중에 있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와 연합한 인간 존재를 상징한다 — 민 14:45.
- D.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민들과 맞서 싸운 것은 땅 위의 보이는 장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묘사한다 — 단 10:10-21, 엡 6:10-20.
1. 우리가 장면 뒤에서 영적인 싸움, 곧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더하여, 하나님과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 사이의 전쟁이 있다 — 엡 2:2, 6:12.
- E.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운 것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는 교회 전체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엡 6:12)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예표한다.
- F.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시지만, 우리와 좋은 땅 사이에는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세력들의 층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을 패배시켜야 한다 — 골 1:12-13, 2:15, 엡 3:18, 6:11-12.
1.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대단히 실질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사람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도록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한다 — 엡 6:10-12, 딤후 6:12상, 딤후 2:3-4, 골 1:13, 18, 2:19, 3:10-11.
 2.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단체적인 전투원,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 사탄의 세력들에게 대항해 싸우고 그들을 패배시켜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엡 3:8, 4:16, 마 24:14, 계 11:15.

여호수아기

메시지 2 (계속)

VI.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밝혀 주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수 5:13-14.

- A.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의 보이는 대장이었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대장이셨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 일곱 족속과 맞서 싸우셨다 — 수 5:14.
- B.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으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항상 거룩하게 되는 위치(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했다 — 수 5:15.
 - 1. 거룩함은 거룩한 본성과 특질이다 — 롬 1:2.
 - 2.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됨은 거룩하게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실지적인 결과이자 행위의 특성이며 완결된 상태이다 — 롬 6:19, 22.

VII.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요인들을 알아야 한다 — 수 6:1-20.

- A. 여리고가 굳게 닫힌 채 왕래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 곧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묶인 것을 상징한다 — 마 12:29, 엡 6:12.
- B. 하나님의 백성은 여리고를 멸망시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었다.
- C.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이스라엘 군대 대장의 지시를 듣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땀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 수 6:3-11.
- D.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멘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 곧 으뜸의 위치를 드림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수 6:4, 7-11, 골 1:18.
 - 1.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공격했을 때, 그들은 언약궤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였다 — 수 5:14, 6:3-11.
 - 2.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사령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가 원수들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 — 수 6:4.
- E. 외치라는 명령이 있기까지 침묵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느낌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수 6:10.
- F.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첫 전투에서 여리고에 승리를 거둔 것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외침으로써 이긴 것이다.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언약궤)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상징한다 — 수 6:2-5.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2 (계속)

VIII. 영적인 승리는 전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달려 있다는 특별한 원칙이 있다 — 대하 20:20-22.

A.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사탄을 이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B.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찬양함으로써 계속 승리한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며, 또한 하나의 사실이다 — 히 11:30, 33-34, 13:15.